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4.26(금) ~ 2024.5.2(목)

제공일시 2023 05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4.26(금) ~ 2024.5.2(목)

제공일시 2024 05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美 “옥수수 에탄올도 친환경 항공유”

- 미국 정부가 일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은 ‘지속가능 항공유(SAF)’의 기준에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포함하기로 결정함
-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 항공유 대상에 옥수수 에탄올을 포함한다고 발표함
- 이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항공유 대비 온실가스(탄소) 배출을 50% 이상 줄여야 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율에 따라 갤런당 1.25~1.75달러(L당 458~641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미국에 항공유를 수출하는 정유사들은 아직 지속가능 항공유 수요가 급증하는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는 분위기임

(한국경제 2024.5.1) 이상은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4.5.1) 국기연 기자

### 2. 유럽연합, 20여년만에 마그네슘 채굴 재개… 中 의존도 낮추기

- 유럽연합(EU)이 20여년만에 마그네슘 채굴을 다시 시작함.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로 해석됨
- 26일 유럽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마니아 광산 업체 베르데 마그네슘(Verde Magnesium)은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마그네슘 광산 채굴권을 부여받아 10억달러(약 1조3800억원)를 투자할 계획임
- 미국의 투자 지원을 받는 베르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폐광을 재개발해 오는 2027년부터 연간 9만t의 마그네슘을 생산할 예정임. 이는 유럽 공급량의 절반, 전 세계 생산량의 9%에 해당함

(더구루 2024.4.26) 정동용 기자

### 3. EU, 경제·안보 위협에 ‘디지털시장법’ 빅테크 규제 수위 높인다

- EU가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앞세워 알파벳(구글),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 하지만 이러한 EU의 디지털시장법이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등 역외 거대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역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방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일단은 이러한 규제를 최대한 준수하려는 모양새임.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도 문제지만,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4.28) 최용석 기자

### 4. 덴마크, 기후위기 대응 위해 ‘농업 탄소세’ 추진

- 덴마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농업 분야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유랙티브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라스 아가드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은 전날 현지 언론에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힘
- 덴마크 정부가 논의 중인 농업 탄소세는 모든 농가에 대해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배출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임

(연합뉴스 2024.5.1) 정빛나 기자

### 1.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 공시 의무화 대상, 시점은 미정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30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함. 이번에는 법제화 전 기준에 대한 발표이므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한국회계기준원이 단독으로 공개함
- 이번 기준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임. 기후 공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됨. KSSB는 기후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보다 정량화가 더 용이해 공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두 번째로는 보고 대상임. 공시 기준은 ISSB에 기반한 만큼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을 대상으로 함
- 논란이 많은 스코프 3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의무화 여부와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KSSB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임팩트는 2024.5.1) 송준호 기자

### 2. 환경부, 新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비... 대응전략 마련 박차

- 환경부는 30일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함
-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통상 흐름,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함
-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는 CBAM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함

(지디넷코리아 2024.4.29) 주문정 기자

### 3. 대기업이 ‘중소기업 산업전환’ 돕는다... 정부, 공동훈련센터 5개소 신규 선정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기업 등이 우수한 자체 훈련 기반 시설을 활용해 저탄소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28일 밝힘
- 신규선정 기관, 주요 훈련내용은 △HD현대건설기계, 친환경·스마트 건설기계 전문인력 양성(충북 음성) △HMM오션서비스, 자율운항선박 기술 선도인력 양성(부산) △KG모빌리티, 영세 정비업체의 미래차 정비 특화인력 양성(대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친환경·스마트 항만물류 선도인력 양성(목포) △동서기공, 저탄소·미래차 부품기업 전문인력 양성(충남 당진)임
- 센터는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함양을 위한 직무전환 훈련을 중소 협력사에 제공할 계획임

(뉴시안 2024.4.28) 이태영 기자

### 4. 한-오만 경제협력 8년만에 재개... 태양광·그린수소 협력

- 한국과 오만의 경제협력위원회가 8년만에 공식 재개하며 양국 간에 태양광, 그린수소, 석유화학 등 투자활성화와 협력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협력 재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임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방한 중인 알리 빈 마수드 알 수네이디 오만경제특구 자유구역청장(장관급)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 재개를 논의함
- 이번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 알 수네이디 청장은 오만이 산업 다각화를 본격 추진 중이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 중이라며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 재개를 제안했음

(에너지신문 2024.4.29) 신석주 기자

### 5. 상의, 탄소감축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 무료 지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재생에너지 활용 전략 무료 컨설팅에 나섬.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힘
-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은 기업별 상황에 맞춰 2단계로 나눠 진행함
- 1단계 ‘현장진단’ 컨설팅은 기업의 전력사용패턴과 전력설비 등 기초정보를 조사해 맞춤형 에너지효율화·전력사용절감방안을 제시함
- 2단계 ‘이행전략’ 컨설팅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 등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함

(뉴시스 2024.4.28) 이현주 기자

## 1. 오스테드, 아태지역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 개최

- 글로벌 해상풍력 선도기업 오스테드(Ørsted)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대만에서 창화 1 & 2a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해당 발전단지의 가동 시작 및 전력망 연결을 공식 발표함
- 창화 1 & 2a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설비 용량은 900MW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임
- 창화 1 & 2a 발전단지는 지역 내 해상풍력 기술 발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국토일보 2024.4.29) 조성구 기자

## 2. AI 시대에 '제2의 석유'된 구리... 세계 최대 구리 공룡 기업 탄생하나

- 세계 최대 광산기업 BHP가 호각을 견주는 영국의 광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칸에 인수 합병을 제안함
-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BHP 그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앵글로 아메리칸 주주들에게 인수 합병 조건으로 주당 약 25.08파운드(약 4만3100원), 총 311억파운드(약 53조4000억원)를 제안했다고 밝힘
- 이는 런던 주식시장 전날 증가 대비 14% 높은 수준인데, 그만큼 구리 시장의 장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임
- 앵글로 아메리칸의 이사회는 고문들과 함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조선일보 2024.4.26) 민서연 기자

## 3. 바스프, 대규모 스팀크래커 전기 가열로 시범 공장 가동

-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사빅(SABIC), 린데(Linde)와 함께 세계 최초로 대규모 스팀크래커 전기 가열로를 갖춘 시범 공장을 준공함
- 독일 루드비히스하펜에 위치한 바스프의 페어분트(Verbund) 생산단지에서 3년간의 개발, 엔지니어링 및 건설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을 시작함
- 3사는 시범 공장 가동을 통해 상업적 운영 조건에서 재료의 거동 및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해당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최종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에너지신문 2024.4.25) 신석주 기자

## 4. MS, 탄소 제거·포집 기업 2곳과 협력해 탄소제거 시장 확대할 예정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에이커 카본 캡처(Aker Carbon Capture), CO280 등 탄소 제거·포집 기업 두 곳과 신규 협력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함
- 이들은 탄소포집 프로젝트 개발부터 탄소제거 디지털 측정, 추적·검증·보고(MRV) 등 공급망 전반에 탄소 제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MS는 “탄소 제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체결했다”며 “탄소 제거를 투명하게 추적하고 탄소 크레딧을 생성함으로써, 탄소 제거 시장과 생태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힘

(임팩트온 2024.4.25) 김환이 기자

## 5. 일본, 재활용 리튬 배터리 활용 '스마트 벤치' 개발... “휴대폰 충전도 가능”

- 일본의 후쿠비 화학공업은 나가세 산업, 캡텍스와 함께 재활용 소재 및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벤치를 개발했다고 23일 발표함
- 후쿠비는 스마트 시티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로 2024년 3월부터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힘
- 스마트 벤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재생 합성 목재로 만들었으며,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모듈로 전력을 생산해 폐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에 축전이 가능한 제품임

(시타입스 2024.4.25) 이유선 기자

### 1. LG화학 1200억원 공동투자... 사우디에 수처리 필터 '역삼투막' 설비

- LG화학이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라예프 그룹과 손잡고 현지 수처리 사업 확장에 나섬
- LG화학은 알코라예프 그룹과 수처리 필터인 역삼투막(RO멤브레인) 제조 시설 현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힘
- 현지 생산시설에는 향후 파트너십을 통해 최대 3억2000만리얄(약 1200억원)을 투자함
- LG화학과 알코라예프 그룹은 2026년 RO멤브레인 제조 시설 현지화를 시작, 향후 사우디 내 추가적인 수처리 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아시아경제 2024.5.1) 최서윤 기자

### 2. SK E&S, 말레이시아 최대 전력기업과 에너지솔루션 사업 협력 나서/ SK E&S, 日 오사카 가스 'e-메탄' 도입... 신에너지 분야 사업 확대

- SK E&S는 25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TNB(Tenaga Nasional Berhad) 산하 연구소인 TNBR(TNB Research Sdn. Bhd.)과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힘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K E&S와 TNBR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및 태양광 등 분산전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게 됨
- 또, SK E&S가 일본 오사카가스와 손잡고 암모니아와 더불어 수소 운반체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메탄(e-메탄)'을 도입함
- SK E&S는 e-메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오사카가스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에 나섬

(가스신문 2024.4.25) 주병국 기자

(더구루 2024.4.25) 정예린 기자

### 3. 현대차, 美 전기차 전용 공장에 '하이브리드 생산 라인' 추가한다/ '세계 3대 車시장' 인도에 공들이는 정의선

-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 중인 세계 첫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생산 라인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의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임
-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 1년 새 두 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음
-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의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업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됨

(M투데이 2024.4.26) 임현섭 기자

(미디어펜 2024.4.28) 김연지 기자

### 4. JLR, 재사용 레인지로버 배터리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 JLR코리아는 JLR이 에너지 저장 분야 스타트업인 앨리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동 중에도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힘
- BESS는 JLR의 재사용 레인지로버 배터리를 활용한 최초의 시스템으로 레인지로버 PHEV를 최대 9대까지 동시 충전할 수 있음
- 또, JLR의 기존 PHEV 및 BEV 제품군과 동일한 입력 방식을 사용해 CCS 지원 차량용 충전기에 연결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됨

(스마트에프엔 2024.4.25) 박재훈 기자

### 5. 두산, 中 선양시와 수소연료전지 사업 '맞손'

- 두산퓨얼셀이 중국 선양시와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협력함
- 29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은 지난 24일 열린 '2024 한국-선양 주간'에서 선양시와 윤곡 두산 스마트 수소에너지 산업단지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맺음
- 두산퓨얼셀은 선양에서 수소연료전지 사업 기회를 발굴함.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향후 투자 규모와 용량 등을 구체화할 계획임

(더구루 2024.4.29) 오소영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4.26(금) ~ 2024.5.2(목)

제공일시 2024 05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G7 기후장관회의, 전력 저장량 6배 확대 및 석탄발전 2035년 중단 논의

- 주요 7개국(G7)의 기후 장관들의 전력 저장량 확대와 석탄발전 중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FT와 로이터 등이 29일(현지시각) 전함
- FT에 따르면, G7은 2030년까지 전력 저장 용량을 2022년의 6배로 늘리는 목표에 동의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로이터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공통 목표 날짜를 2035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함
-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이탈리아 폴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3월부터 분야별 장관회담이 열리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는 4월 28일~30일 진행됨
- 이번 회담은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기후 정상 회담 이후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임
- G7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가 COP28과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COP29 사이의 ‘전략적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힘.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환경 및 에너지 안보부 장관은 “COP28이 제시하는 과정을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함
- FT가 확인한 문서 초안에 따르면, G7의 기후 장관들은 2030년 전기 저장 용량을 2022년 230기가와트(GW)에서 1500GW로 늘리는 글로벌 목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초안에 따르면, G7은 고정식 배터리 저장 장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여 저장 효율성을 높이고 저장 비용을 절감하며, 배터리 저장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장려할 예정임
- 전기 저장 장치에는 배터리, 수소, 수력발전(양수발전) 등이 포함됨. 현재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전기 저장 인프라는 전 세계 발전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댐이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배터리가 신규 저장 장치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 프랑스24는 이번 회의에서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막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에 초청된 아프리카 대표단과의 논의에서 희토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로이터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탈화석연료 전환과 관련된 G7의 논의 내용을 전함
- 로이터에 따르면,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석탄 퇴출을 위한 공동 목표 날짜를 2035년으로 설정하고자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독일은 발전 시장에서 203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독일 산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음
- 이탈리아와 독일은 원자력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공동 성명에 차세대 원자로 연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와 바이오 연료를 포함하기를 원하지만, 2023년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독일은 원자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짐
- 한편,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피마자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임팩트는 2024.4.30) 유인영 기자